

#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확대 '주목'

### 임실군, 고령 영세농 못자리 설치비 등·농업인월급제 지원 활발

임실군이 고령화 농촌사회에 대응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농비 지원정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선 7기 회남농업 공약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은 먼저 공약사업으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 일부개정하고 2022년까지 지원면적 6,6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 못자리 설치비용 면적을 1,200평에서 1,400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2,000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70세 이상 농가 중 벼재배면적이 4.628㎡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대 45만8000원까지 벼 육묘, 경운, 정지비 등 경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영세농이다. 총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출하약정 체결농가에 대해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전금을 벼와 복숭아 품목에 각각 지원한다.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방제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논 병해충 공동방제도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총 9억원을 들여, 12개 읍면 5,000ha에 연 1~2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등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관련 농가부담을 2017년 40%에서 지난해 30%, 올해는 25%로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잡아오는 포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4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며 "농가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올해 새농촌육성기금 20억 조기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농가에 2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 상반기에 20억원 규모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농촌육성기금은 연 1%의 저리 융자를 통해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마련된 기금이다.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20억원으로,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인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3년이다. 지원 대상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가족 임식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등 생산기반 사업, 1읍면 1특화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 귀농인에 한해서 농지구입비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군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중 1차 선정하고,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2차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3월 중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실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3년간 280농가에 89억원을 지원해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했다"면서 "올해도 조기에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자금난 해소 및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5개조 20명)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제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생산업체에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단, 목단 등 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 판매·유통이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부청 관계자는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치매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치매환자관리 지원

### 임실군, 임실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임실시니어클럽과 노인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관리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협약식을 최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임실시니어클럽(관장 김운호)은 행복케어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관리하고, 임실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형진)는 일자리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노인치매 홍보와 치매대상자 선발 등의 업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행복케어사업은 임실군 12개 읍면에 30명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치매환자 가정방문 지원, 치매 예방 교육, 치매고위험군 조기발

견 및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지역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좀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치매관리방법을 배움과 동시에 치매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정부의 복지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번 사업이 노인일자리 개발과 지역사회 치매환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보건소 포괄적 구강관리

남원시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인 사회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치아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틀니관리교육, 시린 치아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등 포괄적인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거동 불편자로 일반인에 비해 치과의원 방문이 어려워 구강 관리가 어렵고 구강상태가 악화되기 쉬워 구강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소는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포도원, 광덕원, 행복의집, 편한세상, 효성의집, 스마일빌 등 6개소 시설이용자 및 직원 577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진행 치과 의사 1명, 치위생사 2명이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틀니교육, 불소도포 등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담당(620-7957~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주광역시 의 관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에 따른 오염된 토양 반입 사태에 대하여 "현실과 괴리된 법령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인하여 군민의 상처가 크며, 옥정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잘못된 법령과 행정절차로 인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잘 보존된 환경이 곧 경제이며,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같이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군민의 대표로서 사명과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인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사회복지시설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의료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치아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틀니관리교육, 시린 치아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등 포괄적인 구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구강상태가 악화되기 쉬워 구강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소는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포도원, 광덕원,

행복의집, 편한세상, 효성의집, 스마일빌 등 6개소 시설이용자 및 직원 577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진행 치과 의사 1명, 치위생사 2명이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틀니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매일 지적장애인협회는 1회 보건소를 찾아 구강검진, 초기 치주병 치료를 위한 스텝링, 이솔질 반복교육 등 구강건강사업을 펼치고 있어 대상자 및 관계시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생육재생기 맥류 관리 철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맥류 생육재생기 도래에 따른 추비사용과 습해방지 등의 재배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년대비 3~4℃ 높아 생육재생기가 2월 13일로 판단됐다. 사질토나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2회로 살포해야 하며, 심한 동해나 늦추위로 생육 부

진 시 생육회복을 위하여 속효성인 유안으로 웃거름 대체 사용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작물환경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생육재생기를 맞아 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구 점검을 철저히 해야 수출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